

“참담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예술
창작의 전문성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됩니까?”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 철회 촉구 성명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우리는,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임명철회를 촉구합니다!

2011년 출범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15년 가까이 어린이·청소년극의 연구와 창작, 작품개발과 관객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현장의 염원 끝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습한 2026년 9월 11일, 어연선 단장 겸 예술감독의 임명장 수여 기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렵게 쌓아온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그 역사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은 결코 일반 연극의 부속 영역이 아닙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서로 다른 발달과 감각, 정서와 관람환경을 이해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오늘날 이 영역은 연극을 넘어 무용, 인형극, 신체극, 음악,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예술감독에게는 어린이·청소년 관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작 경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적 안목, 그리고 이 분야의 미래를 제시할 철학과 비전이 요구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인사를 공연 연출가이자 예술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광명문화재단 3, 4대 대표이사('21~'25)
- 극단 <현장> 대표('05~'12)

- 세종문화회관 근무('12~'21)
 - 예술단협력팀 부장('19~'21)
 - 돈화문국악당사업TF 팀장('17~'19)
 - 국악단운영팀 팀장('16~'17)
 - 홍보마케팅 팀장('15~'16)
 - 국악사업팀 팀장('14~'15)
 - 공연기획팀 팀장('13~'14)
 - 교육전시팀 팀장('12~'13)
 - 문화예술교육팀 팀장('12)

(출처 : 문체부 9.11.보도자료)

✓ 위 경력이 진정,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에 적합합니까?

✓ 어떤 배경에서 예술감독으로의 적합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경력 어디에서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정 전문성은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예술적 전문성을 우선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감독은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한 국립예술단체의 미학과 방향을 결정하고, 작품과 창작자를 선택하며, 그 분야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초대 예술감독이 될 이 자리는 단순한 첫 인사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이 어떤 예술적 가치와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국내 외에 처음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첫 인사는 국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계에는 앞으로의 기준이 되고,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 ✓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축적은 이번 인사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 ✓ 수십 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 온 현장 예술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은 이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2027년 7월, 대한민국 수원에서는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들이 모이는 아시테지 세계총회 및 어린이청소년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성취와 전문성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정작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예술감독 선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설명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 ✓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미래에 내놓은 답입니까?

이번 문제는 한 사람의 자질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을 독립적인 전문예술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문화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면, 그들을 위한 예술 역시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경험, 철학과 비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예술감독을 선임하십시오.

첫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이후의 방향을 바로잡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전문성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존엄과 전문성을 지켜주십시오.

2026.9.11.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현장 공연예술가 일동